

## 「피폭 체험기」

사카모토 나미오 (구명 : 아라카와)

우리들이 매년 전 세계를 향해 평화를 호소하는 이유는, 인류를 향해 최초로 원폭이 투하된 단 두 곳에 해당하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지에서 피폭을 당한 한 사람으로서 그 현장을 이 눈과 이 몸으로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15세였던 저는 미쓰비시전기 나가사키 제작소의 양성공으로 있었으며, 학습 (구 나가사키 고등상업학교)과 실습(시로야마 2 초메)을 3 일씩 교대하는 일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실습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실습장에서 당일의 공장(히미 터널 내)에 배속된 선배들의 용건으로 양성공 10 명이 선생님의 인솔 아래 전차를 타고 본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용건을 마치고 선배들의 짐을 운반하기 위해 기숙사로 돌아가는 트럭 짐칸에 올라탄 채 선생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폭발음, 그리고 여름 하늘보다 밝은, 눈앞이 아찔해져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섬광과 함께 일대에 미세한 먼지를 동반한 강한 열풍이 불어와 몸이 날아가버릴 정도였습니다. 트럭 짐칸에 간신히 매달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영문을 모른 채 하늘을 올려다보니, 태양의 빛마저 차단해버릴 정도의 새하얀 연기와………빛으로 휩싸인 아래쪽에서는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얼떨결에 트럭 밑으로 숨어들어가 머리를 감싸 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5 분………10 분, 아니 더 짧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적막을 깨듯이 적기의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공장 안의 방공호로 대피하라고 외치는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전원이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방공호의 안에서는 회사 사람들이 8 월 6 일에 히로시마에 투하된 신형 낙하산 폭탄과 동일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방공호 안에서 몇 시간을 지낸 후, 선생님의 판단 아래 기숙사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저기 끊겨 있는 도로를 히라도고야마치 (平戸小屋町)에서부터 산 아랫부분을 따라 터벅터벅 걸어서 돌아가는 도중에, 주변의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에 눈을 가리거나 다리가 떨려 그대로 주저앉아버리는 학우들도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도착한 기숙사(시로야마 1 초메)는 불에 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실습장도 파괴되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지붕 아래에 깔려 있는 생존자가

있었기에 쉴 틈도 없이 구출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잠잘 장소도 음식도 없었기에, 밭에 있는 호박을 삶아서 허기를 채우고 밭에 심어져 있는 댁사리풀을 바닥에 깔고 노숙을 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구조대의 지휘 아래 무너져 내린 지붕 밑에서 급우의 시신을 운반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하게 변한 모습의 친구들을 몇 사람이 함께 들어 실습장 운동장에 깔아놓은 댁사리풀 위에 안치시켰습니다. 운동장에 못쓰는 재목으로 정(井)자 받침대를 만들어 시신을 올리고, 3 단을 더 쌓은 뒤 그 둘레를 판자와 나무 조각으로 덮고 전원이 머리를 숙여 합장을 한 가운데 불을 지폈습니다. ‘탁탁’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의 점차 커지는 가운데 받침대의 틈 사이로 선배와 급우들이 불길 속에서 사그라지는 모습을 보며, 떨어져 내리는 불꽃을 맞으면서도 누구 하나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하염없이 서 있었습니다.

3 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을 하는 중에, 전소한 기숙사의 잿더미 안에서 유골을 회수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기숙사와 실습장에서 피해를 입은 약 150 여 명의 유골을 회사로부터 받은 나무 상자에 담아 회사의 회의실에 모신 채 종전을 맞이했습니다.

미야코노조(都城)에서 온 5 명, 다카사키(高崎)에서 온 4 명, 원대한 꿈과 장래에 대한 큰 희망을 품고 나가사키까지 온 소년 9 명 가운데 3 명은 붉은 화염 속에서 재가 되어 친구의 품에 안겨 있는 나무상자 속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3 명은 당일의 열풍으로 부상을 입어 불편해진 몸도 돌보지 않은 채, 서로가 힘을 모아 격려하면서 뻑뻑한 객차와 화물열차 그리고 기관차로 갈아타며 간신히 자신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종전으로부터 어느새 50 년 이상 지나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옵니다. 하지만, 이 체험을 또렷이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한 채 흩어져 버린 친구의 뭇까지 살아가며, 기회 있을 때마다 전쟁의 끔찍함과 핵병기의 비참한 결과, 평화의 소중함을 자손들에게 전해가고 싶습니다.